

노후주거지 공원녹지공간재생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 부산 우암동 노후주거지를 중심으로 -

Impact on Settlement Consciousness from Regeneration of Park and Green Space at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 in Busan

김 묘 정*
Kim, Myo-J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mpact on settlement consciousness from the physical change and community development accomplished by the regeneration of a park and green space in a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 The case study was a park that altered the landscape of a ruined hill in Busan. Two field investigations were performed to determine the condition of before and after the making of the park. A survey was also conducted, the frequency and means were calculated,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he results show, first, the physical regeneration increased the vitality of the place and assisted in the improvement of the community, particularly in satisfaction and attachment to residence, and in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Second, the identity of the resident was improved by the regeneration, and they approved of the transformation of an abandoned space into a usable place. Third,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was significantly reinforced by making the physical environment into valuable space and improving the image of the residential area.

Keywords : Sense of Community, Settlement Consciousness, Park and Green Space, Regeneration

주요어 : 공동체의식, 정주의식, 공원녹지공간, 재생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그 개념정립이나 발전 방향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실천에 대한 노력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기존에 배제되었던 도시재생 추진에 대한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다양한 조직의 상호 협력을 통해 사업의 추진방향을 공유하는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통합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Tchah & Lim, 2011). 특히, 기존 주거지 정비방식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도시의 노후주거지 재생에 있어 단순히 물리적 개선이 아닌 사회경제적 재생과 통합된 형태로 진행함으로써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고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을 모색하려는 방향성이 명확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노후주거지에 대한 재생을 통해 거주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주거지에 대한 애착이 커진다는 결과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주거지에 대한 만족도는 그 곳에 오래 머물러 살고 싶어 하는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역의 물리적 환경 차이는 정주의식을 좌우하기도 한다. 즉, 지속적으로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Lee, Park, & Choung, 2004). 무엇보다 쇠퇴한 주거지에 대하여 공원녹지공간과 같은 공공공간 활용을 통한 재생은 주민들의 상호 교류와 커뮤니티 활성화, 그리고 지역에 대한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Gu et al., 2008). 그러나 공공공간을 도시재생의 매개로 활용한 이후에 실제 사용자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의식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나 정주의식에 대한 영향력 검증은 시도한 연구는 드문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 노후주거지의 공원녹지공간재생 사례에 대하여 거주자의 환경변화에 대한 의견과 공동체의식 및 정주의식을 포함한 사회적 변화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공원녹지공간재생이 거주자의 공동체의식 향상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정주의식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어떠한지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원녹지공간재생의 사회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회원(주거자, 교신저자), 울산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Myo-Jung Kim,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Ulsan Univ. 93 Daehak-ro Nam-gu, Ulsan 680-749, Korea. E-mail: finejung@ulsan.ac.kr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RF. 2010-0022908)

II. 이론적 배경

1. 노후주거지 재생의 개념과 방향

노후주거지 재생은 구도심 활성화, 상권 활성화가 모두 포함되는 도시재생 유형의 하나로 지역 단위의 주거지 쇠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Choi, 2012).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에 대하여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868호). 여기에는 과거와 같이 물리적 환경개선에 초점을 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는 통합적인 접근방식으로 시도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노후주거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은 주로 도로개설 중심의 기반시설 정비에 치중되어 있었고(Ha, 2013), 부족한 녹지시설에 대한 해결에는 무관심하였다. 또한 전면철거방식 위주의 주거지 재생사업은 주민의 재정착률 감소, 커뮤니티 파괴, 경관의 획일화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Kim, Koo, & Lee, 2013). 주거지 재생은 이제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둔 기존의 주거지 정비사업과는 다른 목적을 지녀야 한다. 즉, 주거지 문제를 장기적이고 전략적이며 목표 지향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주거지의 쇠퇴문제는 물리적 주거환경이나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상태 악화가 결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Choi, 2012). 이에 기존의 주거지재생 방식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지에 대한 장소성 유지와 공동체의식 회복과 같은 목표를 기본방향으로 주거지 재생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사업전략 및 추진방안(KURC, 2009)에서는 노후주거지 재생에 있어서 소생활권 단위의 커뮤니티 공간 확충에 관한 전략을 강조하고 있는데 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여 기존의 낡은 공공공간 및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도시재생 방향은 지역의 문화나 자원적 특성에 맞는 접근방법으로써의 지역친화형 재생이 요구된다. 특히, 마을공동체의 형성 및 복원과 공동체 중심의 마을만들기가 주거지 재생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주거안정을 통한 정주의식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Kim, 2013). 또한, 기존 도시의 커뮤니티 측면에서 생활환경개선을 목표로 지역 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공간조성 개념으로 발전해야 한다(Kim & Nam, 2012).

2. 공원녹지공간재생과 효과

주거지 쇠퇴를 극복하고 총체적 주거지재생으로 이어지기 위한 방안 가운데 가로공간이나 공원녹지공간과 같은 공공공간 활용을 통한 재생은 거주자에게 공적인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상호교류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며 지역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또한, 공공공간은 지역의 환경적 보존을 위한 거점 장소로 기능하고 지역의 가치를 증대하는데 기여한다(Seo & Ko, 2008; Gu et al., 2010). 특히, 도시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이나 지역 등에 대한 녹지공간으로의 재창조는 도시의 환경 정비는 물론 개발의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도심내 방치된 구역은 지역의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도시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도시에서는 이러한 공간을 공원이나 문화시설 등으로 재활용하여 주민의 편의성을 높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Rii & Choi, 2009).

이처럼 공원녹지공간은 도시재생의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는데, 단순히 수목이 식재된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아닌 도시의 생태적 자원이자 도시주거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공간으로서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Kong & Yang, 2011). 또한, 도시에서의 공원녹지공간은 거주자의 공동체의식 형성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공동체의식은 근린환경의 다양한 공간에서 거주자에 의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공동의 연대감을 형성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커뮤니티의 형성주체인 거주자와 근린환경 특성과의 연계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활성화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는 주거지의 오픈스페이스나 안전이 보장된 보행환경 등이 이러한 기능을 한다(Oh, 2013).

3. 공동체의식과 정주의식

공동체의식이란 구성원들이 가지는 소속감,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친밀감이 구성요소로 작용한다(Park, 2012). 이와 유사하게 Lee(2013)는 지역사회에 속해 있으면서 받는 만족감,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연대의식, 지역사회와의 일체감, 구성원들간에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식, 친밀한 느낌으로 정의한다. 또한, 공동체의식은 지역성, 상호작용, 유대감과 같은 세 요소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지리적 영역을 함께 공유하고 만남과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구성원들 사이에는 공동의 유대감인 소속감이 형성되고 공동체의식으로 나타나게 된다(Kim & Moon, 2011).

인간이 지역에 대하여 안정된 심리적 결합을 통해 거주하고 있는 상태를 정주라고 하며, 이러한 심리적 결합의 의식을 정주의식이라고 한다. 인간은 한 곳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정주심리를 갖고 있다. 즉, 인간은 지역적 생활환경을 기반으로 삶을 영유하면서 일상생활상의 욕구와 관심을 지역 내에서 일차적으로 충족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거주지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만족하고 지역에 대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된다고 생각되면 주거지에서의 생활에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여긴다(Kim & Shin, 1991). 이와 같은 거주자의 정주의식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고자 한 관련연구(Lee, Park, & Choung, 2004; Lee, 2009)에서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신뢰, 지역의 물리적 환경 등이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식과 정주의식은 주거환경의식을 분석할 수 있는 요소로 공동체의식이 높을 때 정주의식이 커지며(Kim & Shin, 1991), 반대로 지역에 대한 정주의식은 공동체의식을 측정하는 요소로써 정주의식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Kim, Lee, & Kim, 2011)를 통해 이들 요소는 상호보완적임을 알 수 있다.

4. 연구동향

최근 들어서는 기존의 공원이나 버려진 기반시설을 도시재생차원에서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개념은 물론, 사회적 관계 개선 및 공동체 의식 형성과 발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Kong and Yang(2011)의 연구에서는 부산시에 소재한 도시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공원 재생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주자들의 참여와 다양한 활동, 도시의 공원이 주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도시공원의 역할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오래전 조성된 도시의 공원이 우범지역과 쓰레기가 쌓여가는 공간이 되자 ‘살고 싶은 도시마들기’ 사업을 통해 새롭게 재생된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도시의 노후화주거지에 소재한 공원의 재생에 주목하였다는 점이 의미를 갖고 있지만 계량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도시재생의 수단으로서 공공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과 정책 및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Tchah and Lim(2011)의 연구에서는 도시쇠퇴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중소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소중심의 도시재생 수단으로써 공공건축과 공공공간을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을 매개로 한 지방정부의 도시재생 사업현황 및 공공공간 활용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Rii & Choi, 2009)에서는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기존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녹지공간으로 재생한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도시녹화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유휴공간 또한 공공공간의 하나로서 도시미관 저해 및 범죄 장소로의 악용 등 사회적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 관리 및 활용 방안이 관심을 받고 있다. Lim and Lim (2012)은 단순히 건축과 토지에 국한된 유휴공간의 분석이 아닌 지역의 쇠퇴와 관련된 범주에서 유휴공간의 의미와 가치를 분석하였다. 즉, 근린재생과정에서 유휴공간이 도시재생을 위한 주요 자원으로써 주목하고 공공부문의 개입을 통해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처럼 공원녹지공간은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공간인 것은 분명하다. 보다 많은 선행연구(Kim, 2003; Ko, 2007; Ryu, 2010; Choi, 2012)에서는 공원녹지공간이 포함된 다양한 오픈스페이스가 주민공동체 의식향상의 요인으로써 도시의 공원녹지공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원녹지공간 조성에 따른 공동체의식과 만족도 조사는 이루어졌지만 공공공간을 도시재생의 매개로 활용한 이후 사용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나 정주의식 등의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은 시도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자료를 통해 도시재생의 개념과 발전방향, 공원녹지공간의 재생과 효과, 공동체의식과 정주의식의 개념, 그리고 관련 연구동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인 부산 우암동 소재의 공원에 대한 사업특성과 물리적 환경 변화를 사업전과 사업후로 나누어 현장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셋째, 사례공원을 이용하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물리적 환경변화와 공동체의식이 거주자의 정주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사례대상은 부산시 남구 우암동에 위치한 공원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노후주거지내 녹지공간이다¹⁾. 2011년 공원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사업전인 2009년 6월과 사업후인 2013년 8월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사례공원을 실제 이용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무작위표집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3년 8월 3일부터 23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공원의 이용특성, 물리적 변화에 대한 의견, 공원 조성 이전과 이후의 공동체의식과 정주의식이 포함되었다<Table 1>.

물리적 환경 변화에 대한 의견은 총 5개 문항으로 안전성, 접근성, 쾌적성, 유용성, 이미지 측면에서의 의견을, 충족감, 신뢰감, 관심, 참여, 소속감, 애착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사업 전·후의 공동체의식과 정주의식을 조사하였다. 이상의 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고 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측정하였다. 물리적 환경 변화에 대한 의견 5개 문항의 α 계수는 .68, 사업 전·후 공동체의식 6개 문항의 α 계수

1) 해당 사업은 국유지의 불량한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의 환경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도시의 부족한 녹지공간의 확충을 통해 공공공간의 재생을 통한 녹지공간조성이라는 의미를 갖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지역발전위원회, 2012).

Table 1. The Contents of Survey

	Contents
General features	Gender, Age, Household size, Housing type, Housing ownership, Monthly income, Residence period, Number of the friendly neighbors
Using characteristics of the park	Frequency of visit, Time for access to the park, Staying time, Behavior, Sharer
Opinions on the physical change	Safety, Accessibility, Comfort, Usefulness, Image
Community and settlement consciousness	(Before/After)Satisfaction, Trust, Interest, Participation, Sense of belonging, Attachment, Settlement consciousness

는 각각 .79와 .77로 나타나 항목들 간의 내적일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을 위해 최종적으로 사용된 설문지는 총 188부이며, SPSSwin 19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평균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조사결과 분석

1. 사업개요 및 물리적 변화 특성

1) 사업개요

본 연구를 위한 대상지는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주거지내 국유지를 공원화한 사례이다. 대상지역 일대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 정착촌이었던 곳으로 기존의 구릉지에는 60여년 전에 형성된 연고자가 불분명한 476기의 공동묘지가 있었다. 그 후 주민들의 무단 경작이 증가하고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로 인해 도시경관을 해치게 되었다. 특히, 구릉지 정상부에는 포병기지가 있던 곳으로 오래된 철조망과 포진지, 당시의 숙소건물과 창고 등의 군사시설이 방치된 채 있었고 이에 대한 환경개선 요구가 컸던 곳이다.

이에 공동묘지를 정비하고 공원을 조성하고자 주민대표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를 결성하고 24,932 m²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과 공원·녹지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조성사업을 통해 묘지를 이장하고 혐오시설을 정비한 뒤 전망대와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우암동 공동묘지에 대한 공원조성사업은 건설교통부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2007)’와 산림청의 ‘도시숲 만들기’ 사업(2009)을 통해 2011년에 완공되었다(KURC, 2007).



Figure 1. The Location of the Case

2) 물리적 변화 특성

공원조성 사업이 이루어지기 이전, 공동묘지가 있던 구역 전체에 대하여 경계부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철조망이 존재하였다. 또한, 구릉지 정상부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상태였다. 전반적으로 폐쇄적인 분위기의 구릉지는 우암1동과 우암2동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떨어뜨리고 두 주거지간의 단절은 물론 부근에 위치한 체육공원으로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구릉지는 공동묘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무단경작에 의해 전반적으로 험오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주거지 전반에 대하여 쾌적성과 이용의 기회를 감소시키고 양호하지 못한 동네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a) Cemetery and illegal farmland
b) Control of access on the military installations

Figure 2. Before Making of the Park

공원조성 사업은 두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2010년 1차 공사에는 구릉지의 전체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23,079 m²에 대하여 식재공사와 더불어 운동 및 휴게시설 공사, 난간을 포함한 안전시설 공사, 그리고 황토 및 잔디블록 포장공사가 이루어졌다. 그 후, 2011년 2차 공사에서는 1,853 m²에 대하여 전망데크를 조성하고 포진지를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포함하여 식재 및 부대시설 공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공원에는 1개의 주출입구와 2개의 부출입구를 통해 주변의 주거지와 연계되도록 계획하였으며 휴게시설과 산책로 등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포진지를 리모델링함으로써 한국전쟁당시의 옛 분위기를 보존하고 있다.



a) Rest area and walk
b) Observatory deck

Figure 3. After Making of the Park

2. 설문조사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및 공원이용특성

조사대상자는 모두 188명으로 52.7%가 남자, 47.3%가 여자였다. 이용자의 56.1%는 50-60대였고 70대 이상 노인층도 20.9%를 차지하였다. 전체의 68.8%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자가인 경우가 87.1%였다. 월소득은 200만원~300만원 미만인 30.9%로 가장 많았으나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전체의 25.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 거주지인 우암동에서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는 전체의 74.5%였으며 그 가운데 50년 이상 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22.3%를 차지하였다. 친하게 지내는 이웃의 수는 5명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3.0%로 가장 많았다<Table 2>.

Table 2. Frequency of General Features of Subjects (n=188)

	Contents	n	%
Gender	Male	99	52.7
	Female	89	47.3
	Total	188	100.0
Age	30s~40s	42	23.1
	50s~60s	102	56.1
	More than 70s	38	20.9
	Total	182	100.0
Housing type	Detached house	128	68.8
	Row house or APT	58	31.2
	Total	186	100.0
Housing ownership	Own	162	87.1
	Jeonse	24	12.9
	Total	186	100.0
	Monthly income (10,000won)	Less than 100	28
100~200		30	27.3
200~300		34	30.9
More than 300		18	16.3
Total		110	100.0
Residence period (year)	Less than 10	24	12.8
	10~20	24	12.8
	20~30	34	18.1
	30~40	24	12.8
	40~50	40	21.3
	More than 50	42	22.3
	Total	188	100.0
Number of friendly neighbors	Less than 5	80	43.0
	5~10	70	37.6
	More than 10	36	19.4
	Total	186	100.0

조사대상자의 공원 이용특성을 살펴보면, 주 3-4회 정도 이용하는 경우가 38.7%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매일 온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도 30.1%였다. 공원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10-20분 정도가 44.7%로 가장 많았고 2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를 오는 경우도 39.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공원의 주출입구가 구릉지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공원에 머무는 시간은 1-2시간이 53.8%로 가장 많았고 산책과 휴식을 하는 경우가 58.1%였으며, 함께 이용하는 사람은 친구 또는 이웃이 46.7%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Using Characteristics of the Park (n=188)

	Contents	n	%
Frequency of visit	1~2 times a month	18	9.7
	1~2 times a week	40	21.5
	3~4 times a week	72	38.7
	Everyday	56	30.1
	Total	186	100.0
Time for access to the park (minutes)	Less than 10	30	16.0
	10~20	84	44.7
	More than 20	74	39.4
	Total	188	100.0
Staying time (hour)	Less than 1	36	19.4
	1~2	100	53.8
	More than 2	50	26.9
Behavior	Total	186	100.0
	Exercising	58	31.2
	Walking and resting	108	58.1
	Meeting with neighbor or friend	20	10.8
Sharer	Total	186	100.0
	Friend and neighbor	86	46.7
	Husband or wife	38	20.7
	Alone	50	27.2
	Child or grandchild	10	5.4
Total	184	100.0	

2) 물리적 변화에 대한 의견

공원이 조성된 후 변화된 물리적 환경을 안전성, 접근성, 쾌적성, 이용성, 이미지 측면에서 조사하였다<Table 4>. 모든 항목에 대하여 3.50 이상의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원조성으로 인해 동네의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점에 대한 점수가 3.97 (SD=.72)로 가장 높았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은 동네이미지 상승으로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되었고 주거지에 대한 정체성이 제고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쓸모없던 구릉지가 주민을 위한 유용하고 가치 있는 공간으로 변화했다는 데 대한 생각이 매우 긍정적임(3.88)을 알 수 있었다. 즉, 조사대상자들은 공원조성 이후 물리적으로 주거지가 쾌적해지고 더욱 안전해 졌다는 환경적 변화에도 물론 긍정적이지만, 버려졌던 공간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

Table 4. Opinions on the Physical Change

Contents	M	SD
The image of the neighborhood was improved by the making of the park (image).	3.97	.72
The park was changed into a useful place for residents (usefulness).	3.88	.97
The park and surrounding environment became more comfortable (comfort).	3.83	.83
In the neighborhood, a safe outdoor space was constructed (safety).	3.60	.70
Accessibility to the park and green space were upgraded (accessibility).	3.55	.99

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공원조성 전·후의 공동체의식 및 정주의식 변화

공원이 조성되기 이전과 이후의 공동체의식 변화를 비교하였다. 공동묘지와 군사시설이 방치되었을 때 조사대상자들이 느꼈던 공동체의식과 공원조성 사업 이후 느끼는 공동체의식을 각각 응답하게 하여 조사하였다. 공원이 조성되기 이전의 공동체 의식은 전체 평균 2.36(SD=.87)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공원조성 이후 조사대상자가 느끼는 공동체의식은 전체 평균 3.51(SD=.76)로 높아져 공동체의식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5>.

Table 5. Change of the Community Consciousness and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before & after Making Park

Contents	Before		After		
	M	SD	M	SD	
Community consciousness	Satisfaction	2.40	.92	3.79	.58
	Trust	2.27	.86	3.45	.80
	Interest	2.30	.94	3.46	.71
	Participation	2.12	.71	3.17	.99
	Sense of belonging	2.71	.95	3.65	.75
	Attachment	2.37	.85	3.55	.74
	M	2.36	.87	3.51	.76
Settlement consciousness	2.47	1.01	3.41	.93	

지역 및 마을에 대한 충족감에 대한 변화가 2.40(SD=.92)에서 3.79(SD=.58)로 1.39의 차이를 보여 공동체 의식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보였고 동시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요소이다. 이는 공원조성에 따른 단순한 만족감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즉, 이용가치가 크게 없던 땅에 대하여 재생을 통해 지역주민의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자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체감하는 등 복지적 차원에서 향상된 만족감이라고 해석된다. 애착 또한 공원조성 이전(2.37)과 이후(3.55)의 점수 차이는 1.18점으로 상당히 향상되었다. 즉, 전반적인 공동체 의식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에 대하여 사업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나타났으며 공동체 의식이 뚜렷하게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주의식에 대한 변화를 비교해보면, 공원조성 전 주거지에 대한 정주의식은 2.47(SD=1.01)에 불과하였으나 사업 이후 3.41(SD=.93)로 현 주거지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려는 의사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4)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공원조성사업에 따른 물리적 변화특성들이 정주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6>. 안전성, 접근성, 쾌적성, 유용성, 이미지의 5개 독립변인들을 투입한 결과 R²은 .111로서 종속변수인 정주의식을 11.1%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이용성과 이미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공원조성으로 인해 버려졌던 공간에 대한 이용가치가 커졌다고 여길수록,

그리고 동네의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생각할수록 정주의식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Physical Change and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Indep. Var.	Dep. Var. Settlement consciousness		
	B	Beta	t-value
Image	.351	.273	3.518**
Usefulness	.166	.175	2.220*
Safety	.009	.007	.091
Accessibility	.023	.025	.272
Comfort	.014	.013	.145
Constant=1.633 R ² =.111 d.f.= 5 F=4.532**			

*p<.05 **p<.01 ***p<.001

기존의 구릉지는 주변 거주자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혐오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동네에 오래 거주하고 싶다는 의지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사라지고 주민들을 위한 이용 가능한 녹지공간으로 바뀌면서 동네를 대표하는 의미 있는 공원이 되었기 때문에, 공간의 가치가 커지고 동네 이미지가 향상되었다고 생각할수록 정주의식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주의식에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 의식의 요소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7>. 충족감, 신뢰감, 관심, 참여, 소속감, 애착의 5개 독립변수들을 투입한 결과 R²은 .357로서 종속변수인 정주의식을 35.7%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신뢰감, 관심, 애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웃과 동네에 대하여 신뢰와 관심이 높을수록, 애착이 강할수록 정주의식은 커짐을 알 수 있다.

사업 이후 전반적인 공동체 의식은 매우 높아졌다. 특히, 사업 이전 혐오스러운 공간이 주거지내에 존재함으로써 이웃과 마을에 대해 낮았던 믿음과 의존도, 즉 신뢰감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정주의식이 강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숲’ 조성사업을 통한 주거지의 변화에 대하여 참여를 통해 지켜보는 과정에서 다소 미약했던 이웃과 마을에 대한 관심 및 애착이 향상되어 현 주거지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려는 의지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Table 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Community and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Indep. Var.	Dep. Var. Settlement consciousness		
	B	Beta	t-value
Satisfaction	.147	.092	1.104
Trust	.286	.249	3.047**
Interest	.233	.178	2.066*
Participation	.102	.110	1.525
Sense of belonging	.095	.077	.850
Attachment	.173	.138	2.067*
Constant=.211 R ² =.357 d.f.= 6 F=16.584***			

*p<.05 **p<.01 ***p<.001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도시 노후주거지 공원녹지공간재생에 따른 거주자의 환경변화에 대한 의견과 공동체의식 및 정주의식 변화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녹지공간재생이 거주자의 공동체의식 향상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거주자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이루어졌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이용자는 50대 이상이 많았고 20년 이상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았다. 이들은 공원이 구릉지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소 길더라도 주3회 이상 자주 이용하는 편이었으며 1-2시간 정도 산책과 휴식을 하면서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나 이웃과 함께 공원을 이용하며 공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은 공원녹지공간재생을 통해 주거지에 대한 정체성이 높아졌고 방치되었던 공간이 의미 있고 쓸모 있는 공간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또한, 공동체의식과 정주의식은 사업이후 더욱 뚜렷이 강화되었는데 그 가운데 주거지에 대한 충족감과 애착이 가장 크게 향상되었다.

셋째, 공원녹지공간재생의 결과가 노후되고 혐오스러웠던 주거지 분위기를 개선시켜 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버려졌던 공간이 유용한 공간으로 변화되었다고 인지할수록 정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웃과 마을에 대한 신뢰와 관심, 애착은 현 주거지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려는 의지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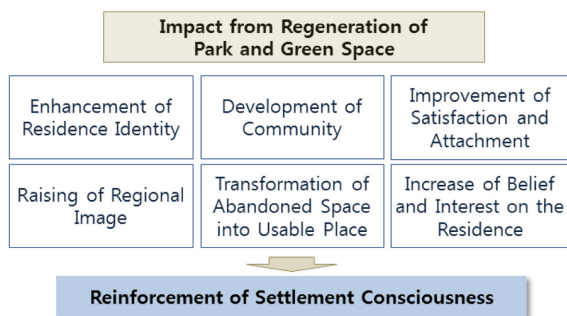


Figure 4. Impact from Regeneration of Park and Green Space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원녹지공간재생의 사회적 측면에서의 효과와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의 노후화된 주거 밀집지역은 거주자를 위한 공공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의 개선은 정주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즉, 공원녹지공간에 대한 물리적 재생은 공간적인 활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거주자의 공동체의식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 특히, 주거지에 대한 애착을 강

하게 하는 주요 요소이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다시 정주의식 강화에 대하여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도시 노후주거지에 대한 공원녹지공간재생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사회적 특성에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 배제 완화를 위한 재생방안으로 적극 적용되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주거지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원녹지공간재생 방식은 거주자의 주거지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 인식을 확대시켰다. 즉, 재생의 대상이 되는 물리적 환경이 가치 있는 장소로 변화하고 그로 인한 전반적인 동네 이미지 향상은 거주자의 정주의식을 더욱 강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공원녹지공간재생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식하여 활용하려는 시도도 중요하지만 공원녹지공간의 재생과정에서 형식적인 공간의 정비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환경개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거주자 모두의 공간으로 인지될 수 있는 유용한 공간이자 주민 이용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셋째,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바람직한 도시재생의 전략은 해당 지역의 환경과 조건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조사대상 거주자는 새롭게 재생 공급된 공원녹지공간에 대하여 큰 가치를 부여하므로 그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 및 공간이 제공되었다는데 대한 복지체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공공공간재생은 주민의 복지적 차원에서의 효과를 더불어 향상시킬 수 있는 재생방식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후주거지 재생의 형태에서 녹지공간재생을 통한 사회적 특성 변화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다양한 주거지재생 유형을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공공간재생을 매개로 한 여러 유형의 노후주거지 재생 사례분석을 통해 공동체의식 및 정주의식을 포함하는 사회적 특성의 변화에 대하여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자료 분석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방치된 구릉지와 혐오스러운 동네이미지라는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여 주민을 위한 의미 있는 공원녹지공간으로 변모시킨 사례를 찾아 거주자들의 정주의식과 변화된 사회적 특성을 검증하였는데 본 연구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REFERENCES

1. Choi, B. S. (2012). *A Sense of Community after Composition at Hate Fac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Seoul.
2. Choi, S. T. (2012). *A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Resident-Oriented Neighborhood Regener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3. Gu, N. E., Lee, Y. S., Yoon, H. G., Jung, E. J., & Kim, G. H. (2010). Characteristics of Neighborhood Parks Regeneration in Ballymun Decay Area. Paper session presented at proceedings of Spring Annual Conference of

- Korean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p. 77-84), Seoul, Korea.
4. Ha, C. H. (2013). *A study on maintenance of land and house in deteriorated low-rise residential district for neighborhood regener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5. Kim, A. L., Koo, J. H., & Lee, J. L. (2013).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of Elderly Residents on the Planned Elements of the Participatory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ing Projects. *Journ al of Korean Housing Association* 24(6), 103-110.
 6. Kim, H. (2013). A Critical Review on the Conceptual Scope and Policy Institution Process in the Korean Context of Urban Regeneration. *Journal of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26(3), 1-22.
 7. Kim, J. J. & Shin, N. S. (1991).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Consciousness of inhabitants.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7(5), 261-269.
 8. Kim, J. Y. & Nam, Y. W. (2012). A Study on the Reconsideration of the Direction throug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Analysi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Spatial Design*, 7(3), 167-176.
 9. Kim, M. Y. & Moon, J. M. (2011). Character for Community Vitality in Urban Public Space-Focus on the Urban Square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0(6), 291-299.
 10. Kim, N. S., Lee, I. H., & Kim. Y. G. (2011). A Study of Community Awareness in Local Residents after the Restoration of Seongnaecheon.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9(4), 74-82.
 11. Kim, S. M. (2003). *A Study on th Community Sense Formation by Use Program in the Urban Park*.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Seoul.
 12. Ko, E. J. (2007). *Effects of changes in pedestrian environment on the sense of community by the wall removal projec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3. Kong, Y. G., & Yang, H. S. (2011). The Creative Regeneration and Daily Life on Urban Park-The Case of JeonpoDolsan Park in Busa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7(5), 582-599.
 14. KURC (2007). *Urban regeneration Casebook*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R&D Value Creator-10). Seongnam: KURC.
 15. KURC (2009). *Urban regeneration strategy and Forward Direction* (A series of stratage demand -03). Seongnam: KURC.
 16. Lee, E. G. (2009). *A Study on Effects of Residents' Settlement Conscious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uwon.
 17. Lee, H. C., Park, H. B., & Choung. W. I. (2004). An analysis on the factors to affect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of inhabitant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13(3), 147-167.
 18. Lee, J. E. (2013). *A study on the influence of participation in community business on local sense of commun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9. Lim, Y. G., & Lim, H. S. (2012). *Neighborhood Regeneration Policy Proposal on the Revitalization of Vacant Urban Spaces* (AURIC Publication No. 2012-3). Anyang: AURIC.
 20. Oh, J. H. (2013). *Planning Elements of Community Vitalization for Social Sustainability in Residential A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21. Park, J. G. (2012). Strategy on the formation of the regional community.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7), 183-193.
 22. Rii, H. E., & Choi, J. H. (2009). Creation and Utilization of Green Spaces in the City from the Viewpoint of Urban Renewal. *Journal of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2(1), 1-10.
 23. Ryu, I. C. (2010). *A study on effects of the natural ecological stream on the resident community build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24. Seo, S. J., & Ko, E. J. (2008). *Evaluation of Public Spaces as Catalyst for Urban Regeneration* (AURIC Publication No. 2008-6). Anyang: AURIC.
 25. Tchah, C. Y., & Lim, K. R. (2011). *Public Architecture and Public Spaces Utilization towards Urban Regener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URIC Publication No. 2011-8). Anyang: AURIC.
 26.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868호.
 27. 지역발전위원회(<http://www.region.go.kr>)

접수일(2014. 10. 14)
수정일(1차: 2014. 11. 24)
게재확정일자(2014. 11. 26)